

## 4. 정책동향

### 1. 「K-반도체 전략」,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

정부는 7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,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K-반도체 전략」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음. 그간 추진된 「K-반도체 전략」은 규제완화,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하였으며, '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, 제도 개선,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다.

■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세제·금융지원,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중임.

- ① (세제지원)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(R&D)·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, 현재 메모리·시스템·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임.

\* 반도체, 배터리, 백신 3대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선정 추진 중

⇒ 향후, 기재부는 세법개정안('21.7월)을 통해 국가전략기술(안)을 발표하고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.

- ② (금융지원) 반도체 등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(1조원+α)은 지난 6.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, 소부장,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.

- ③ (규제완화) ①지난 6.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, ②화학물질 취급시설 인·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·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임.

⇒ 아울러, ①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, ②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·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·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임

- ④ (기반구축) 용인·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·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\*을 진행 중(용인)이며,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(용인·평택)

\* '21.7월 중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 예정 → 결과를 고려하여 하천점용허가 처리 추진

- ⑤ (외투자지원)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①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(A社)이며, ②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(B社)임.

⇒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·허가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.

## ■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·관이 함께 노력하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.

① (인력양성) 삼성전자-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민·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(3,000→3,500억원)하여 기획 중.

⇒ ①동(同)사업은 '21.3분기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며, ②반도체 실무교육 강화\*를 위한 신규사업도 '2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임.

\*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신설, 반도체설계교육센터(IDEC) 지원 확대 등

② (기술개발) '20.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①PIM\*,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'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, ②차세대 전력 반도체,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(非)예타 연구개발(R&D) 사업도 준비 중임.

\* Processing In Memory : 연산(프로세서)·저장(메모리) 기능이 통합된 반도체

⇒ 예산사업의 경우 '22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

## ■ 마지막으로, 반도체 등 (가칭)국가핵심전략산업\* 육성을 위해 「(가칭)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을 준비한다.

\* 국가안보와 미래 제조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산업

○ 향후, 「반도체 특별법」에 반영하려던 주요내용과 연계하여 「(가칭)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」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.

## 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“지난 5월 13일 「K-반도체 전략」 발표 이후 민·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,

○ “특히,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기반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·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,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밝히고,

○ “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「K-반도체 전략」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”고 언급하였음.

## 2. 제2차 전자부품분야(반도체,디스플레이,산업융합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전자부품분야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산업융합)의 2021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# ○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

-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
  - (반도체) 시장선도형 차세대 센서,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, 시스템반도체상용화설계
  - (디스플레이) OLED공정장비핵심부품
  - (산업융합) 주력산업IT융합

### ○ 지원 대상

- (반도체)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, 시장선도형 차세대 센서, 스마트센싱유닛제품화실증기반구축, 전략제품창출글로벌 K-팹리스육성 기술개발,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, 시스템반도체상용화설계, 반도체제조공정장비
- (디스플레이)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, 초대형마이크로LED모듈러디스플레이
- (산업융합) 주력산업IT융합, 임베디드인공지능시스템, 산업용지능융합부품

### ○ 지원대상 사업 목록

세부 분야	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공고예산 (백만원)	품목지정 (과제수)
반도체	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	시장선도형 차세대 센서	970	2
	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	시스템반도체핵심IP	400	1
	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(설계,제조)	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설계	900	1
디스플레이	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	OLED공정장비핵심부품	625	1
산업융합	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	주력산업IT융합2	2000	1

### ○ 신청 안내

- 공고기간 : 2021. 6. 21(월)~7. 20(화) 18:00까지
- 양식교부 : 2021. 6. 28(월)~
  -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: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 사이트(itech.keit.re.kr)
- 접수기간 : 2021. 6. 21(월)~7. 20(화) 18:00까지

### 3. 제2차 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개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6.28(월), 서울 엘타워에서 업계 대표기업 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“제2차 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”를 개최하였음. 지난 3월 9일, 반도체·디스플레이 “2050 탄소중립”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“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”가 출범했으며, 이번 2차 회의는 그동안 민관이 함께 논의해 온 반도체·디스플레이 탄소중립 주요과제와 중장기 R&D 로드맵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업계,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.

#### 참석자 토론

-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▲탄소저감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, ▲탄소중립 기술 개발 지원, ▲친환경 제품 개발·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대응 방향에 관해 토론함
  -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부회장은 “반도체 산업 탄소중립 추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획기적인 친환경 기술개발이 중요하다”면서,
    - “이를 위해 소자 및 소·부장 기업 간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함
  -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성진 부회장은 “탄소중립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물론, 산업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”면서,
    - “디스플레이 산업은 민·관·학·연이 협력하여 획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가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힘
- 산업통상자원부는 “우리 반도체·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,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”고 말하면서,
  - “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업계의 과감한 투자를 보여주길 바라며, 정부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다짐하였음.

## 4.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기술수요조사 시행계획 공고

### ○ 프로그램 개요

#### ■ 프로그램 소개

- 본 프로그램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과업을 분담하고 중소기업과 대·중견 기업, 대학, 전문연, 출연연 등의 기관들이 협업(컨소시엄)을 통해 동시에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.
- \* 3개 이상의 독립된 세부 과제로 구성 필요, 과제별 주관기관은 중소기업(예시 참조)
- 중소기업이 단독·공동으로 수행했던 세부 과제 단위의 기술개발을 탈피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, 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임.
- 본 공고는 공동의 목표와 세부 과제별 기술 개발에 적합한 기술 분야를 공모하기 위한 기술 수요조사 공고이며,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정공모 과제(RFP)를 발굴·확정하고 본 프로그램은 '22년 상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임.

#### ■ 프로그램 목적

-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R&D 지원을 통해 R&D협력 생태계 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

■ 지원 대상 : 중소기업(대학·출연연·전문연, 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 등 컨소시엄 필수)

■ 지원규모/분야 : 10개 내외 컨소시엄 / 소재·부품·장비, BIG3, 한국판 뉴딜 분야 등

### ○ 기술수요조사 개요

■ (조사기간) 2021. 6. 28(월) ~ 2021. 7. 28(수), 18:00 까지

■ (조사분야) 소재·부품·장비, 미래차·반도체·바이오헬스, 디지털·그린(E.S.G.(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) 및 탄소중립 포함)·뉴딜 등 중소기업의 미래 新성장동력 창출 분야

|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

원문보기